

제 100회 제1차 목포시의회 의사록

1. 개의 : 단기4292년 11월 9일 상오 11시30분
2. 폐의 : 단기4292년 11월 9일 하오 1시
3. 장소 : 목포시의회의사당
4. 사회 : 의장 김삼성
5. 출석의원 : 재적16명중 출석의원 11명
결석의원 김남진, 강영락, 명남철, 이정권, 김일섭 의원
6. 출석공무원 : 하시장, 이병규 및 각 과장, 교육감 박세문

7. 의사일정

보고사항

- 의원관외출장결과보고(김성균 의원)
- 청원서처리전말보고 1.유증제출분 2.공생원제출분 3.상무회제출분
- 청원서접수상황보고 영해동해산물상제출분

부의사항

1. 단기4292년도 제3회 목포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
2. 목포시교육위원회기본재산적립금지출승인안
3. 단기4292년도 목포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 일시차입안
4. 목포시상수도비기채승인안

8. 토의사항

- 의원관외출장결과보고

◇ 김성균 의원

- 용당도선장 자동차 적재관계를 타협하기 위하여 각 여객회사를 심방하였는데 강진선을 운행하는 전남여객만 목포에 유지한다면 다른 회사는 자연스럽게 될 것 같으며 전남여객에서는 벌써 목포 측에 정류장후보지를 모색중이라는 말도 입수하였습니다. 그리고 정기화물차도 4대가 있다 하는 바 한가지 난관은 적재하는 차체의 요금은 수납한다 하더라도 그 승객의 도선료를 여하(如何)히 할 것인가가 연구과제이며 금반(今般)에 일척을 증조함으로 인하여 목포의 발전은 온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운영실적으로 보아서는 일년에 2400만 환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.

· 유달중학교로부터 제출된 청원서 처리 전말보고

◇ 김삼성 의장

- 유달중학교 보건장 후보지 양도에 대한 청원서는 그 동안 여러 각도로 검토한 결과 시내에 소재한 교육시설이니 만큼 재정법 상 저축을 안받을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집행부에 일임할 것을 결정 보았습니다.

· 승소토지에 대한 변호사 사례금 배상의 건

김성호씨 생존시 오백만 환이 청구 된 것으로서 이제는 타계하신뒤이나 이제까지는 재정상 허용을 못보아 지연되어 있으나 사백만 환을 다음의 추경예산에는 적의반영 되도록 집행부에 일임하였습니다. 따라서 고 문승모씨에게도 삼십만환 가량 지변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하였습니다.

· 공생원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의 건

· 대한상무회로부터 제출된 청원의 건

◇ 장건식 총무과장

- 공생원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은 형편상 매각할 수 없는 것이고 상무회 측의 요구는 재정법상 불가능한 형편이니 사정양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· 청원서접수상황보고-영해동 해산물상

◇ 박찬대 서기

-제안이유설명

◇ 김경인 의원

- 소개발언하다. 본 의원의 골자인 시도 제구십팔호선 즉 저축은행 앞으로부터 공동번서에 이르는 도로의 포장공사에 관한 것인바 해도로의 중요한 위치성에 감하여 명년도 예산에는 기어코 반영될 수 있도록 요망하는 바입니다.

◇ 김삼성 의장

- 본건 해당상임분과위원회 회부를 선언하다.

◇ 김상태 의원

- 긴급동의, 저반일간중앙지에 보도된 바 있는 건설과의 마기?보고. 철부정매각문제에 있어서 건설과에서 이를 공매할 시는 당연히 총무과 회계계{에 의뢰 정확한 감정을 실시하여 매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단독으로 시가 삼백만원가량의 물자를 불과 삼십사만원에 시내소재 이승원씨에게 매도 하였다는 바 그 내용인 즉 이건설과과장은 전기물자중 마기샤 한대를 이승원씨로부터 양도받을 조건 부 었다는 데 이승원씨는 이것을 현금으로 반환을 이정권의원을 통하여 이과장에게 탁송하였으나 현품이 아니라 하여 거절하므로 그 현금 삼십만원 자유당시당위원장인 유정두씨에게 보관되었다는 불미스러운 풍문이 있는 것으로 이 문제에 시의원까지 개재한 사건인 만큼 그 진상여부를 규명키 위하여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동의한다.

◇ 김상대 의원

- 본건은 이미 사직당국에서 조사에 착수하여 일단락을 보았다고 들려진 문제이며 이사건에 자유당시당위원장이 개재하였다 운운한 말은 불쾌하기 작이 없으며, 우리 의원중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가담하였다고 하지만 개인대 개인간 금전거래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니 구태여 조사단을 구성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. 그리고 본의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그 췌덩어리는 망운비행장의 유물로서 미군부대가 철퇴당시 우리시에 맡기고 간 고철들이라고 한

다.

◇ 김경인 의원

- 우리 의원중에서 이러한 불미한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점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 하겠으며 일개 고철이라 할지라도 적재적소로 필요한 사람은 상당한 고가로 구득(求得)할 것인 즉 집행부측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원매자를 색출하도록 공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. 그리고 이를 맡어보는 공무원이 관련하여 이에 오점을 남겼음은 실로 유감된 일이니 김상태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여 조사단을 구성 진상을 파악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.

◇ 김창희 의원

- 찬성발언

표결에 부쳐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가결

◇ 김삼성 의장

- 조사위원을 김상태, 김상대, 정응표 의원을 지명

◇ 김삼성 의장

- 부의안건 상정 선언

· 단기4292년도 제3회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

· 목포시교육위원회 기본재산 적립금 지출승인 안

· 단기4292년도 목포시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일시차입 안

◇ 이 사무장

- 제안이유설명

◇ 김경인 의원

- 국민학교비에서 220만 환을 삭감하여 경상비에 충당하였는데 이를 여하히

생각하는가

◇ 이 사무장

- 국민학교를 관리하는 교육청의 부득기한 유지관리비에 충당하려 한 것입니다.

◇ 김경인 의원

- 국민학교비의 집행률과 교육세의 징수율여하

◇ 이 사무장

- 약 5할 집행에 세금 4할 정도 징수하였습니다.

◇ 김삼성 의장

-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선언

· 목포시 상수도 확장공사비 기채승인 안

◇ 박찬대 서기

- 제안이유설명

◇ 김상대 의원

- 13만 시민의 생활 문제를 좌우하는 상수도확장공사는 중단되느냐 계속 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고 보아지는 중대한 시기에 처했으며 전 시민이 총괄 기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직면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여하한 방도로 이를 해결하려 하매 중앙당국과의 교섭결과를 말하여 주기 바란다

◇ 김경인 의원

- 의회 개최시 기회 있을 때마다 상수도공사의 진행 개요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어도 이를 준비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. 의결부에서 이의 공사 진행과정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.

◇ 김성균 의원

- 저반중앙출장의 기회에 토목국장을 심방하여 상수도공사 문제를 진언하였

던 바 목포는 물을 못먹을 것으로 단정 아니할 수 없는 단계에 놓여 있다고 느껴졌다. 내무부복안은 95년도까지 목포상수도를 완성시키고 96년도부터 부산의 상수도를 착수할 계획이었다는데 벌써부터 부산에서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. 집행부측은 상수도공사수행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당하여 주기 바란다.

◇ 김삼성 의장

- 집행부책임자인 부시장이 부재중이니 명일 개최되는 제 2차 회의에서 이를 해명하여 주기 바란다.

◇ 김삼성 의장

- 해산선언 (하오1시정각)

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날인함

단기4292년 11월 10일

시의원 김성균

시의원 김상태

작성자 서기 주도식

제100회 제2차 목포시의회 회의록

1. 개의 : 단기4292년 11월 10일 상오 11시
 2. 폐의 : 단기4292년 11월 10일 상오 11시 40분
 3. 장소 : 목포시 의회 의사당
 4. 사회 : 의장 김삼성
 5. 출석의원 : 재적 16명중 출석의원 12명 결석 명남철, 강영락,
김남진, 이정권 의원
 6. 출석공무원 : 총무과장 장건식 교육감 박세문 및 이사무장
 7. 의사일정
보고사항
· 부의안건에 대한 내무위원장 종합심의보고

부의사항
· 제1차 회의시와 동일함
 8. 토의사항
· 내부위원회종합심의보고
- ◇ 천철수 내무위원장 보고
- (1) 교육위원회에 제안한 세안 건을 비롯하여 시에서 제안한 상수도 확장공사비 기채안 등 원안무수정통과를 보았습니다.
 - (2) 영해동 해산물상을부터 제출된 18호선 포장공사의 청원서는 집행부에서 이송키로 결정을 보았습니다.

◇ 김삼성 의장

- 부의안건 상정선언

· 단기4292년도 제3회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

◇ 정응표 의원

- 본건 문사·내무위원회에서 심심(深深)검토하여 원안 무수정 통과로 회부된 것이니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무수정통과 할 것을 동의

◇ 김경인 의원

- 금차 추경에 국민학교비에서 220만 원을 삭감하였으나 앞으로 학교운영에 원만을 도모할 것을 부탁하면서 사청

◇ 조양순 의원

- 국민학교에서는 매년 1회씩이라도 연구호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면에 반영시킬 것을 부탁한다.

정 의원 동의를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

· 목포시 교육위원회 기본재산 적립금 지출 승인 안
· 단기4292년도 목포시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일시차입 안
· 목포시 상수도확장공사비 기채승인 안

◇ 김경인 의원

- 전기 3건 역시 전문 및 내무위원회에서 심심 검토한 것이니 제반 절차를 생략하고 원안 무수정통과 할 것을 결의 일재청 삼청

표결에 부쳐 만장일치 가결

◇ 김경인 의원

- 근간 모 국민학교에서 기성회를 설치하고 기성회비를 징수한다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측 해명 있기를 요망한다

◇ 이 사무장

- 유달초등학교 기성회장 명의로 회비 모집 신청이 제출되어 도당국에 문의 하였던 바 이는 아동상대가 아니고 학구상대라면 무방하니 허가하고 보고하 라 하여 그대로 실시하였습니다.

◇ 김삼성 의장

-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금년도 하반기 시정감사를 래 12월에 소집되는 정기의회 회기중 12월 2일부터 시정전반에 긍하여 실시할 것을 선언

◇ 김경인 의원

- 상수도 확장공사 진행 팜플렛 편찬 위원회를 3명정도 구성하되 그 지명은 의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 (재청, 삼청)

표결에 부쳐 만장일치 가결

◇ 김삼성 의장

- 편찬위원으로 김상대, 김경인 의원을 지명

이어서 장건식 총무과장으로부터 제1차 회의시 행정부에 질의한 바 있는 상 수도 확장공사 진행과정에 있어 부시장을 대리하여 답변이 있었음

◇ 김삼성 의장

- 산회선언 (하오 11시 40분)

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에 서명날인함

단기4292년 11월 11일

시의원 김성균

시의원 김상대

작성자 서기 주도식